20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 5:21~24, 히 11:5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 배울 말씀

1. 에녹은 일평생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인임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셨음을 압니다.

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삼백 육십 오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 ]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1~24)

말씀을 이해하기

에녹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 사람으로서 첫 사람 아담의 7대손이자 성경의 최고령자인 므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세상에 심판을 경고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 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성적인 타락과 폭력으로 얼룩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은 죄와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믿음 가운데 세상의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옮기심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에녹의 의로운 삶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믿음의 삶의 대가는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홍수 이전에 에녹이 옮겨진 사건은 훗날 대환난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5)

By faith Enoch was taken away so that he did not see death,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for before he was take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He 11:5)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어떠했을지 말씀에서 찾아보고 적어봅시다(암 3:3, 고후 5:9, 딤후 4:2, 유 1:14).

2 에녹이 데려감을 당하고 나서 그의 증손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세상은 물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은 후에 세상에는 어떤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까(벧후 3:6~7, 살전 4:16~5:3, 고전 15:51~52)?

3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 적어봅시다(히 11:5~6).

4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휴거) 받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까? 서로 교제해 봅시다(마 24:42, 살전 5:5~8).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5:24	
월	롬 8:8	
화	고후 5:9	

수

엡 5:10

목

살전 5:3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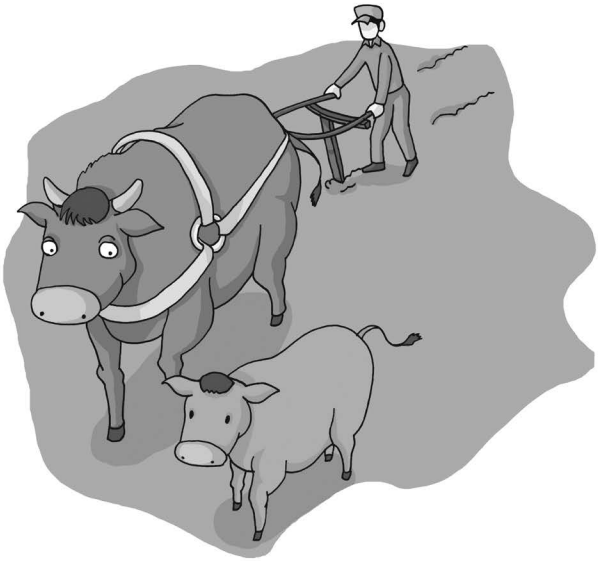
벧후 3:7

토

유 1:14

동행

지금 두 마리 소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어미소는 멍에를 지고 힘있게 앞서 전진하고 있고, 그 뒤를 새끼 송아지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어미소가 밭을 갈며 돌때 뒤에서 바짝 따르면 힘이 덜 들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따라가면 힘이 덜 들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면 송아지처럼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방주에 어떤 생물들이 탔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몇 종(種)의 짐승들이 있는지, 또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에는 각종 해양생물은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에서 살 수 있는 각종 양서류나 파충류 그리고 곤충들도 방주에 태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방주에 타야만 했던 생물은 육상동물과 조류뿐입니다.

동물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은 총 1,000,000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었던 생물은 17,600여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탄 방주의 크기는 창세기 6장 14~1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대략적인 크기는 길이 140미터, 폭 23미터, 높이 14미터,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축구장보다 좀 더 길고 폭은 축구장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약 570칸 달려 있는 기차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17,600여 종의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만 그 기차에 탄다고 할 때 다 탈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생물들의 부피의 평균을 계산하면 양 한 마리 정도의 부피가 되므로, 기차에는 총 35,200마리의 양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570칸짜리 기차에는 약 125,280마리의 양을 채울 수 있다고 하므로, 실제보다 3배 이상 수용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 실었다는 것과, 지금은 멸종된 생물들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방주에는 모든 생물을 충분히 태울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가장 안정적인 선박입니다. 그리고 삼층으로 만들어 모든 생물이 안전하게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